

1. 다음 <표>는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업종별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업종(생맥주·주점, 치킨전문점, 커피·비알콜음료, 편의점, 한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종별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단위: 십억원, 백만원/명, %)

업종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분	전년 대비 증가율			
A	26,881	2,792	11.6	133.7	4.7	3.6
의약품	5,722	1,078	23.2	418.7	39.6	10.4
B	14,463	3,319	29.8	101.0	8.2	8.8
제과점	3,752	285	8.2	101.0	6.7	7.1
피자·햄버거	5,183	620	13.6	83.9	5.0	6.3
C	7,604	954	14.3	118.4	11.1	10.3
D	2,405	880	57.7	81.2	15.8	24.2
E	5,840	1,455	33.2	50.1	1.9	3.9
자동차 수리	3,554	375	11.8	132.0	5.4	4.3
두발미용	1,315	186	16.5	61.7	3.7	6.4

<정 보>

- 2022년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다.
- 2022년 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전문점이다.
- 전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의약품, 한식, 커피·비알콜음료, 생맥주·주점이다.
- 전년 대비 2022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 3개는 의약품, 생맥주·주점, 치킨전문점이다.

- | | A | B | C | D | E |
|---|-------|-----|--------|----------|----------|
| ① | 편의점 | 한식 | 생맥주·주점 | 커피·비알콜음료 | 치킨전문점 |
| ② | 편의점 | 한식 | 치킨전문점 | 생맥주·주점 | 커피·비알콜음료 |
| ③ | 한식 | 편의점 | 치킨전문점 | 커피·비알콜음료 | 생맥주·주점 |
| ④ | 한식 | 편의점 | 생맥주·주점 | 치킨전문점 | 커피·비알콜음료 |
| ⑤ | 치킨전문점 | 한식 | 편의점 | 생맥주·주점 | 커피·비알콜음료 |

2. 다음 <표>는 2019~2023년 A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무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2019~2023년 A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산업	수출액	542,233	512,498	644,400	683,585	409,502
	수입액	503,343	467,633	615,093	731,370	433,279
	무역수지	38,890	44,865	29,307	-47,785	-23,777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액	308,636	300,186	363,479	373,749	215,731
	수입액	192,921	197,635	248,321	263,904	164,518
	무역수지	115,715	102,551	115,158	109,845	51,213
소재 산업	수출액	91,390	90,647	120,324	117,719	69,382
	수입액	62,254	59,050	81,362	81,358	47,814
	무역수지	()	()	()	()	()
부품 산업	수출액	195,984	190,290	222,027	234,261	132,324
	수입액	112,438	112,897	133,683	152,420	96,993
	무역수지	83,546	77,393	88,344	81,841	35,331
장비 산업	수출액	21,262	19,249	21,128	21,769	14,025
	수입액	18,229	25,687	33,276	30,126	19,711
	무역수지	3,033	-6,438	-12,148	-8,357	()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보 고 서>

A국 정부는 자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A국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는 15% 이상 증가하였다. A국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이다. ㉡2020~2023년 동안 전체 산업 수출액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부 품목이 전략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분야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9~2023년 동안 매년 소재 산업의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이다. ㉣2022년 전체 산업 수입액 대비 부품 산업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장비 산업의 무역수지 증감폭은 2022년 대비 2023년 장비 산업의 무역수지 증감폭의 3배 미만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 다음 <표>는 2022년 연령대별 사망원인 순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 연령대별 사망원인 순위
(단위: 명/십만명, 명)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사망 원인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 원인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 원인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 원인	사망률	사망자 수
1	고의적 자해	21.4	1,394	고의적 자해	25.3	1,680	악성 신생물	37.0	2,980	악성 신생물	100.6	8,604
2	악성 신생물	3.9	251	악성 신생물	11.1	738	고의적 자해	28.9	2,329	고의적 자해	29.0	2,479
3	운수사고	3.5	231	심장 질환	3.8	251	간 질환	12.4	1,003	심장 질환	24.2	2,073
4	심장 질환	1.2	77	간 질환	3.2	214	심장 질환	10.3	834	간 질환	23.4	1,998
5	코로나19	0.8	55	운수사고	2.8	187	뇌혈관 질환	8.7	703	뇌혈관 질환	18.4	1,577
6	뇌혈관 질환	0.7	48	뇌혈관 질환	2.5	166	운수사고	3.8	306	코로나19	10.9	929
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0.4	27	코로나19	1.4	94	코로나19	3.6	294	당뇨병	8.5	730
8	추락	0.4	27	당뇨병	0.8	53	당뇨병	2.6	212	폐렴	7.2	613
9	폐렴	0.4	26	폐렴	0.7	46	폐렴	1.9	157	운수사고	6.2	534
10	간 질환	0.4	26	가해 (타살)	0.5	33	추락	1.8	147	추락	4.7	404

※ 사망률은 특정 연령대의 인구 10만명당 해당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를 의미함

<보 기>

- ㄱ. 40대와 50대의 간 질환 사망자 수의 합은 20대와 30대의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의 합보다 적다.
- ㄴ. 모든 연령대에서 심장 질환의 사망률이 뇌혈관 질환보다 높으며, 운수사고의 사망률이 코로나19보다 높다.
- ㄷ. 50대의 상위 10순위 내 사망원인에 의한 총사망자 수는 20~40대 상위 10순위 내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의 합보다 많다.
- ㄹ.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운수사고의 사망원인 순위는 하락하였고, 간 질환의 사망원인 순위는 상승하였다.
- ㅁ. 20대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추락의 사망률보다 높으며 30대에서는 폐렴의 사망률이 추락의 사망률보다 높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 다음 <표 1>, <표 2>는 갑국의 고향사랑기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국 연도별 고향사랑기부 금액 및 건수
(단위: 십억원, 천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3,653.2	5,157.1	4,875.4	6,724.9	8,302.4	9,654.1
건수	17,302	23,224	23,336	34,888	44,473	51,843

<표 2> 2022년 갑국 고향사랑기부 금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억원, 천건, 천명)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금액	고향사랑기부 건수	인구
A	1,959.3	1,004	160
B	1,943.3	1,289	21
C	1,761.3	829	27
D	1,483.4	926	9
E	1,377.2	924	99
F	1,087.4	898	10
G	950.8	167	1,440
H	908.6	780	126
I	880.6	344	47
J	874.9	501	64

<보 기>

- ㄱ. 2017~2022년 연평균 고향사랑기부 금액은 6조원 이상이다.
- ㄴ. 2018~2022년 동안 갑국 전체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8년이고, 고향사랑기부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20년이다.
- ㄷ. 2022년 갑국 전체 고향사랑기부 금액 중 2022년 고향사랑기부 금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다.
- ㄹ. 2022년 고향사랑기부 금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인당 고향사랑기부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C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5. 다음 <표 1>, <표 2>는 갑국의 2020~2023년 세목별 세수추계액 및 세입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세목별 세수추계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소득세	()	()	()	()
근로소득세	205	237	187	156
양도소득세	308	108	570	478
배당소득세	101	550	113	160
법인세	598	782	879	580
부가가치세	387	681	651	377

<표 2> 세목별 세입실적 현황
(단위: 조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소득세	542	702	944	772
근로소득세	156	138	157	187
양도소득세	299	89	650	388
배당소득세	87	475	137	197
법인세	521	671	812	601
부가가치세	321	557	601	321

※ 1) 갑국의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로 구성됨
2) 연도별 특정 세목의 $\frac{\text{세수추계액}-\text{세입실적}}{\text{세입실적}}$ 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해당 세목의 세수추계 정확성이 높다고 봄

<보 기>

- ㄱ. 2020~2023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세입실적이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순서는 매년 동일하다.
ㄴ. 2021~202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세수추계액이 소득세 세수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이상이다.
ㄷ. 2021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세수추계 정확성이 가장 낮은 세목은 소득세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다음 <표 1>, <표 2> 및 <그림>은 토마토와 딸기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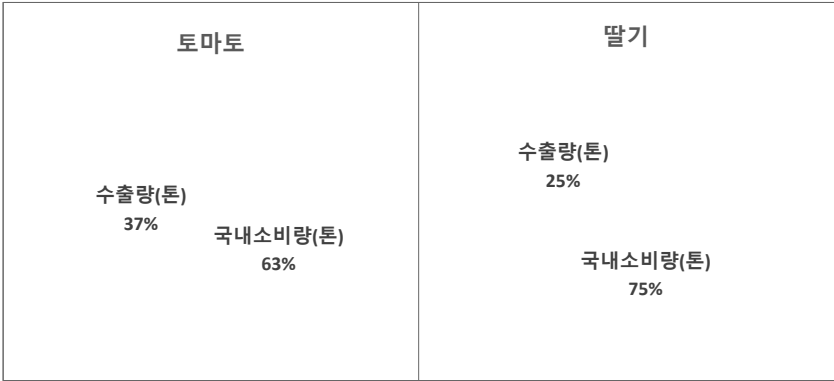
<표 1> 토마토 생산 현황

총생산량(톤)	총생산면적(ha)
80,000	700
스마트팜 생산량 비중(%)	스마트팜 생산면적(ha)
85	640
일반 시설하우스 생산량 비중(%)	일반 시설하우스 생산면적(ha)
15	60

<표 2> 딸기 생산 현황

총생산량(톤)	총생산면적(ha)
200,000	6,000
스마트팜 생산량(톤)	스마트팜 생산면적 비중(%)
60,000	17
일반 시설하우스 생산량(톤)	일반 시설하우스 생산면적 비중(%)
140,000	83

<그림> 토마토·딸기 국내소비 및 수출 현황



※ 총생산량(톤) = 국내소비량 + 수출량

- ① 딸기의 수출량은 토마토의 국내소비량보다 많다.
② 딸기의 일반 시설하우스 생산면적 비중이 토마토의 스마트팜 생산면적 비중보다 높다.
③ 스마트팜 생산면적은 딸기가 토마토의 1.5배 미만이다.
④ 총생산면적당 총생산량은 토마토보다 딸기가 더 많다.
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양은 토마토가 딸기보다 많다.

7. 다음 <표 1>, <표 2>는 2022년 갑국의 ODA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2년 갑국 지역별 ODA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기타	총계
유상	7,039	3,373	1,380	785	106	650	13,333
무상	4,860	2,674	1,097	863	114	9,257	18,865

<표 2> 2022년 갑국 분야별 ODA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	교육	수자원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에너지	기타	총계
유상	2,470	3,776	0	570	2,242	891	610	1,470	1,304	13,333
무상	1,780	448	3,163	2,362	244	1,581	1,788	425	7,074	18,865

※ ODA 예산은 유상과 무상으로만 구분됨

<보 기>

- ㄱ. 기타를 제외한 지역 중 지역별 유·무상 ODA 예산 대비 무상 ODA 예산의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중동이다.
- ㄴ. 교육, 수자원, 농림수산, 에너지 분야를 합한 ODA 예산은 유상이 무상보다 많다.
- ㄷ. 교통 분야 유상 ODA 예산 중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 편성된 ODA 예산은 최소 855억원 이상이다.
- ㄹ. 갑국 전체 ODA 예산 중 보건 분야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8. 다음 <표 1>, <표 2>는 2023년 15~54세 경력단절여성 연령대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3년 연령대별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천명, %)

연령대	기혼 여성(A)	비취업여성(B)		경력단절여성(C)		
			비율(B/A)		비율(C/A)	비율(C/B)
전체(15~54세)	7,944	2,836	35.7	1,349	17.0	47.6
15~29세	294	121	41.2	64	21.8	()
30~39세	2,072	836	40.3	545	26.3	65.2
40~49세	3,475	1,227	()	589	16.9	48.0
50~54세	2,103	652	()	151	7.2	23.2

- ※ 1) 비취업여성은 기혼여성 중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임
- 2) 경력단절여성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임

<표 2> 2023년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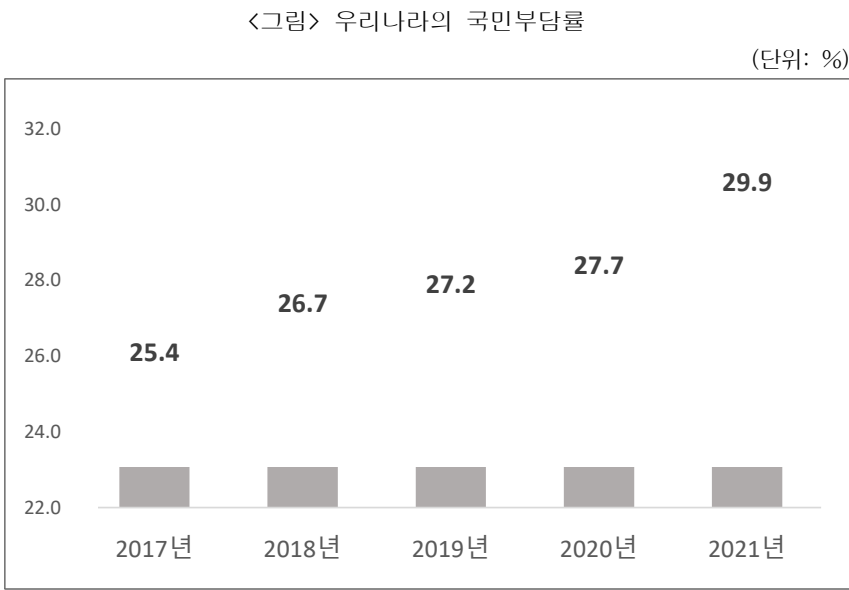
연령대	경력단절 사유					
	합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전체(15~54세)	100.0	26.2	23.0	42.0	4.4	4.4
15~29세	100.0	29.7	()	32.8	0	1.6
30~39세	100.0	23.3	()	45.3	2.9	1.1
40~49세	100.0	()	20.4	43.0	()	4.9
50~54세	100.0	35.8	11.9	()	6.6	15.2

<보 기>

- ㄱ.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동일하다.
- 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력단절 사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 ㄷ.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 ㄹ.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수는 30~39세보다 50~54세에서 더 많다.
- ㅁ. 경력단절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의 경력단절 사유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돌봄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9. 다음 <그림>과 <표>는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단위: 조원,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상GDP		1,835.7	1,898.2	1,924.5	1,940.7	2,080.2
조세	계	()	377.9	383.9	387.6	456.9
	국세	()	293.6	293.4	285.6	344.1
	지방세	80.4	84.3	90.5	102.0	112.8
조세부담률		18.8	19.9	19.9	()	22.0

※ 1) 국민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2) 조세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3) 사회보장부담률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보 기>

ㄱ. 사회보장부담률은 2021년이 2019년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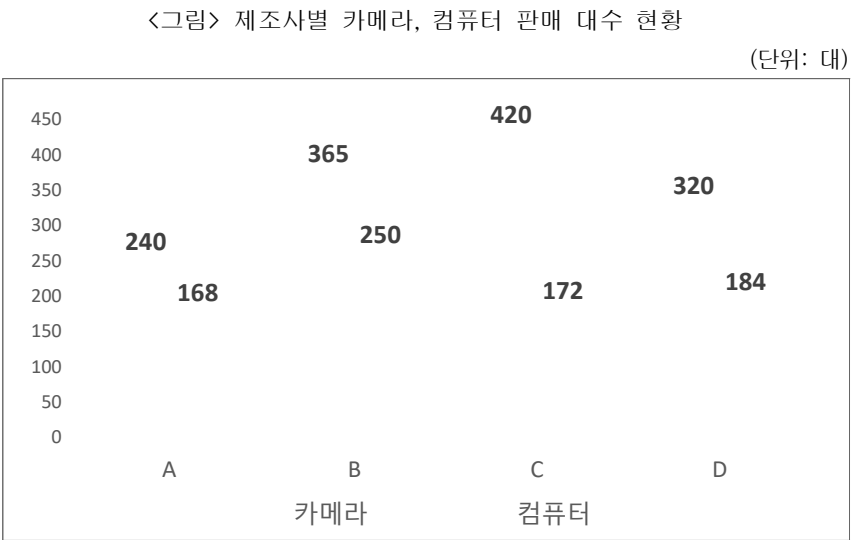
ㄴ. 2022년 경상GDP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국세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 지방세 규모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다면 2022년의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다.

ㄷ. 2020년의 사회보장기여금은 140조원 이상이다.

ㄹ. 국세 규모는 2017년이 2019년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10. 다음 <그림>과 <표>는 제조사별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판매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제조사별 전체 판매 대수 대비 프린터 판매 대수 비율 (단위: %)

제조사	프린터 판매 대수 비율
A	15
B	18
C	26
D	28

※ 제조사 A~D는 모두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만을 판매함

- ① 제조사 A의 프린터 판매 대수는 제조사 B의 프린터 판매 대수의 50% 이상이다.
- ② 제조사 B와 C의 전체 판매 대수의 평균은 775대이다.
- ③ 제조사 A, B, C의 프린터 판매 대수의 합은 415대이다.
- ④ 제조사 B와 D의 전체 판매 대수의 합에서 프린터 판매 대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이상이다.
- ⑤ 제조사 B와 D의 카메라 판매 대수 차이는 프린터 판매 대수 차이보다 작다.

11. 다음 <표>는 갑국 에너지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에너지 생산 현황
(단위: 천TOE, %)

구분	2021년 1월 에너지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증감률)	2023년 1월 에너지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증감률)
합계	4,245	592 (16.2)	4,734	-68 (-1.4)
화력	36	-2 (-5.3)	26	-8 (-23.5)
풍력	10	-13 (-56.5)	0	0 (0.0)
파력	1	-1 (-50.0)	0	-1 (-100.0)
원자력	2,991	457 (A)	3,335	-95 (-2.8)
지열	41	-7 (-14.6)	44	1 (2.3)
바이오	668	50 (8.1)	735	-1 (-0.1)
태양광	492	110 (28.8)	586	36 (6.5)
태양열	6	-2 (B)	8	0 (0.0)

※ 위 <표>에 제시되지 않은 에너지 자원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 ㄱ. 2023년 1월 에너지 생산량 중 원자력, 바이오,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이다.
- ㄴ. A의 절댓값은 B의 절댓값보다 크다.
- ㄷ.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월이 2022년 1월보다 크다.
- ㄹ. 2021~2023년 동안 1월 화력 에너지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매년 감소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2. 다음 <표>는 가계지출 항목별 평균 지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가계지출 항목별 평균 지출액
(단위: 천원)

지출 항목		전체가구	저소득가구	저소득외가구
소비지출	식료품비	948	500	1,060
	주거비	158	110	170
	광열수도비	124	100	130
	가구·가사용품비	162	50	190
	의류·신발비	134	30	160
	보건의료비	242	170	260
	교육비	190	30	230
	교양오락비	142	30	170
	교통·통신비	578	170	680
	기타소비지출	896	240	1,060
소비외지출	송금보조	238	70	280
	세금	(A)	50	360
	사회보장부담금	(B)	40	380
	이자지출	134	30	160
총가계지출		4,556	1,620	5,290

※ 전체가구는 저소득가구와 저소득외가구로만 구성됨

- ① 전체가구 중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25% 미만이다.
- ②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미치지 못한다.
- ③ 소비지출 항목 중 저소득외가구의 평균 지출액 대비 저소득가구의 평균 지출액의 비율이 가장 적은 항목은 교육비이다.
- ④ 저소득가구의 총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저소득외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 ⑤ 전체가구의 세금 평균 지출액(A)은 사회보장부담금 평균 지출액(B)보다 작다.

13. 다음 <표>는 2017~2022년 갑 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7~2022년 갑 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록금 수입(A)	100,564	100,566	100,426	100,152	99,023	98,118
자금수입(B)	188,606	186,052	186,989	182,427	185,075	191,011
등록금 의존비율	()	54.1	()	54.9	()	51.4

※ 등록금 의존비율(%) = $\frac{A}{B} \times 100$

<보 기>

- ㄱ. 2018~2022년 중 갑 대학의 등록금 의존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에는 등록금 수입도 감소하였다.
- ㄴ. 전년 대비 2023년 갑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10% 감소하고 자금수입이 10% 증가할 경우, 등록금 의존비율은 전년 대비 10%p 이상 하락한다.
- ㄷ. 2018~2022년 동안 전년 대비 자금수입 증감분이 100만원 이하인 해가 존재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4. 다음 <표>와 <정보>는 기업 A의 연도별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기업 A의 연도별 거래 현황
(단위: 백만개)

연도	매입수량	매출수량	기타수량	순거래량
2018년	450	25.5	()	()
2019년	426	28	16	()
2020년	()	()	36	336
2021년	()	()	38	345
2022년	()	35	28	362

<정 보>

- 순거래량은 매출수량과 기타수량의 합계를 매입수량에서 차감한 것이다.
- 2020~2022년 동안 매출수량 대비 기타수량의 비율은 일정하다.
- 2018~2022년 기타수량 평균은 27.3백만개이다.

- ① 2018년 기타수량은 18.5백만개이다.
- ② 순거래량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한다.
- ③ 2020년 이후 매입수량은 2022년에 가장 크다.
- ④ 2020~2022년 동안 매입수량 대비 순거래량의 비율은 일정하다.
- ⑤ 2018~2022년 중 연도별 매입수량이 2018~2022년 매입수량 평균보다 작은 해는 2개이다.

15. 다음 <표>는 2020~2024년 항목별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2024년 항목별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항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1,656,929	1,721,499	1,739,641	1,785,886	1,825,887	2.2	2.5
기본경비	115,046	120,755	121,232	126,688	137,566	8.6	4.6
강사 처우개선	151,300	155,906	158,904	162,288	166,500	2.6	2.4
실험 기자재	121,679	149,327	116,516	327,881	329,909	0.6	()
국립대학 육성사업	172,195	153,350	148,924	457,977	572,212	24.9	35.0
교수보직 수행경비	19,255	19,255	19,213	19,213	19,213	0.0	-0.1
조교 연구성과금	1,955	1,958	1,960	1,962	1,963	0.1	0.1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111	8,315	9,003	()	8,817	-2.6	2.1
정보화사업	35,214	13,631	13,841	13,826	10,777	-22.1	-25.6
시설확충	703,668	770,967	675,347	1,001,853	()	()	10.0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55,829	30,913	67,702	62,126	41,686	-32.9	-7.0

※ 연평균 증가율(%) = $\left\{ \left(\frac{\text{최종연도 수치}}{\text{최초연도 수치}} \right)^{\frac{1}{\text{기간}}} - 1 \right\} \times 100$

<보 기>

- ㄱ. 2024년 시설확충 예산은 1조원 이상이다.
ㄴ. 2023년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ㄷ. 2020~2024년 실험 기자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5% 이상이다.
ㄹ. 2020~2024년 인건비 예산 대비 기본경비 예산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영, 나영, 다영, 라영은 2024년 2월 1일 A 스터디룸을 공동으로 빌려 사용했으며, 다음 <표 1>, <표 2>는 A 스터디룸 요금표와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 스터디룸 요금표
(단위: 원)

구 분	08:00~10:00	10:00~18:00	18:00~20:00
시간당 요금	6,000	4,800	6,000

<표 2> A 스터디룸 사용 현황

시간 \ 이름	가영	나영	다영	라영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 스터디룸 미사용 ☒ 스터디룸 사용

※ 시간당 요금은 해당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한 인원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담함

<보 기>

- ㄱ. A 스터디룸 총사용 요금은 62,400원이다.
ㄴ. 라영이 최종 부담하는 요금은 14,800원이다.
ㄷ. 나영이 14:00~16:00에도 A 스터디룸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다영이 최종 부담하는 요금은 1,600원 감소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다음 <표>는 2015~2020년 갑국의 주요 이동수단 종류별 이용자 수 및 이용률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D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갑국 연도별 · 종류별 주요 이동수단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단위: 백명, 명/천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이용자 수	8,526	8,264	8,034	7,746	7,624	7,510
	이용률	16.7	16.2	15.7	15.1	14.9	14.6
A	이용자 수	8,380	8,432	8,766	8,786	8,966	8,944
	이용률	16.4	16.5	17.1	17.1	17.5	17.4
B	이용자 수	11,311	11,001	10,721	10,611	10,586	10,565
	이용률	22.2	21.5	20.9	20.7	20.6	20.6
C	이용자 수	17,399	17,963	17,980	17,852	18,574	18,673
	이용률	34.1	35.1	35.1	34.8	36.2	36.4
D	이용자 수	2,354	2,472	2,517	2,473	2,643	2,745
	이용률	4.6	4.8	4.9	4.8	5.1	5.3
E	이용자 수	1,374	1,300	1,279	1,268	1,341	1,284
	이용률	2.7	2.5	2.5	2.5	2.6	2.5
F	이용자 수						
	이용률						

※ 1) 이용률(명/천명): 해당 이동수단 연간 이용자 수를 당해연도 인구로 나눈 수치에 1,000을 곱한 것
2) A~F는 기차, 버스, 비행기, 자전거, 택시, 페리 중 하나임

<정 보>

- 이용률이 매년 10을 초과하는 이동수단은 기차, 버스, 비행기, 택시이다.
- 버스 이용자 수 대비 택시 이용자 수는 매년 50% 이상이다.
- 2015년 자전거 이용자 수는 비행기 이용자 수의 30% 미만이었으나, 2019년에는 30% 이상이다.
- 매년 버스 이용자 수는 기차 이용자 수의 두 배 이상이다.
- 2020년 기차와 택시의 이용률 합은 버스의 이용률보다 높다.

- | | | |
|---|-----|-----|
| | A | D |
| ① | 비행기 | 기차 |
| ② | 기차 | 버스 |
| ③ | 기차 | 택시 |
| ④ | 버스 | 자전거 |
| ⑤ | 비행기 | 버스 |

18. 다음 <표 1>, <표 2>는 A지역의 유료 공용주차장 요금 조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조정 전 주차요금
(단위: 원)

구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기본요금 (최초 30분 이내)	초과요금 (30분 초과 후 매15분 이내)		
1급지	700	350	8,000	88,000
2급지	400	200	6,400	70,000
3급지	300	150	3,900	43,000

<표 2> 조정 후 주차요금
(단위: 원)

구분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기본요금 (최초 10분 이내)	초과요금 (2시간 이내)	초과요금 (2시간 초과)		
		10분 초과 후 매10분 이내	2시간 초과 후 매10분 이내		
1급지	500	300	500	12,000	130,000
2급지	300	200	300	8,000	90,000
3급지	200	150	250	6,000	66,000

※ 1) 시간제 주차요금은 기준시간을 기점으로 기본요금만 부과하거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조정 후 3급지에 한 번에 연속하여 2시간 30분 주차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은 200 + 150 × 11 + 250 × 3 = 2,600원임
2) 운전자는 시간제, 1일, 월정기 주차요금 중 총주차요금이 가장 적은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함

<보 기>

- ㄱ. 10일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조정 전 2급지와 조정 후 1급지 모두 1일 주차요금 방식보다 월정기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이 더 적다.
- ㄴ. 한 번에 연속하여 3시간 주차하는 경우, 조정 전 1급지와 3급지의 시간제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 차이는 조정 후 1급지와 2급지의 시간제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 차이보다 100원이 많다.
- ㄷ. 한 번에 연속하여 3시간 주차하는 경우, 조정 전 1급지의 시간제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은 조정 후 2급지의 시간제 주차요금 방식에 따른 총주차요금보다 100원이 적다.
- ㄹ. 조정 전 3급지에 11일간 매일 한 번에 연속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가 선택하는 주차요금 방식은 1일 주차요금 방식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21~2023년 갑국 스포츠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표 1> 2021~2023년 스포츠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 수	105,445	97,668	116,095
종사자 수	449	376	406
매출액	75,581	48,025	58,346
내수	73,765	47,410	56,797
수출	1,816	615	1,549
영업이익	6,948	2,033	4,664

<표 2> 2023년 조직형태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억원)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외법인	비법인단체	합계
사업체 수	101,299	12,643	1,629	524	116,095
매출액	13,011	33,549	9,977	1,809	58,346

<표 3> 2023년 스포츠산업 업종별·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개)

구분 종사자 수	업 종	사업체 수
1~4명	스포츠시설업	40,418
	스포츠용품업	33,711
	스포츠서비스업	33,546
5~9명	스포츠시설업	1,911
	스포츠용품업	2,003
	스포츠서비스업	816
10~19명	스포츠시설업	875
	스포츠용품업	763
	스포츠서비스업	324
20~49명	스포츠시설업	575
	스포츠용품업	335
	스포츠서비스업	187
50명 이상	스포츠시설업	389
	스포츠용품업	127
	스포츠서비스업	115
합 계		116,095

19. 위 <표 1>, <표 2> 및 <표 3>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고 서>

갑국은 스포츠산업이 주력산업인 국가는 아니지만 꾸준한 투자로 성과를 보고 있다. ㉠매출액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스포츠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하면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021년의 80%에 미치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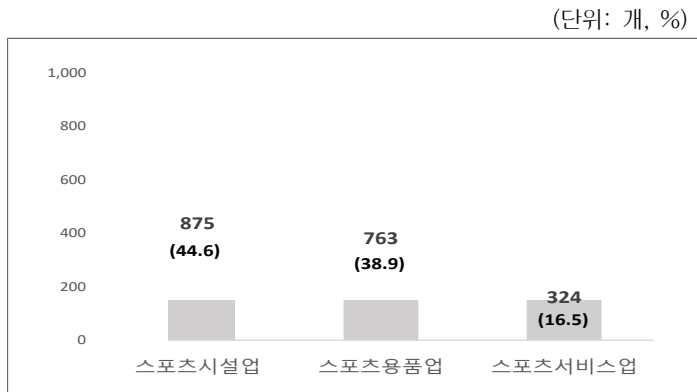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다. 또한, 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형태에서 사업체당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스포츠산업 업종별·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5~9명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사자 수 구간에서 스포츠시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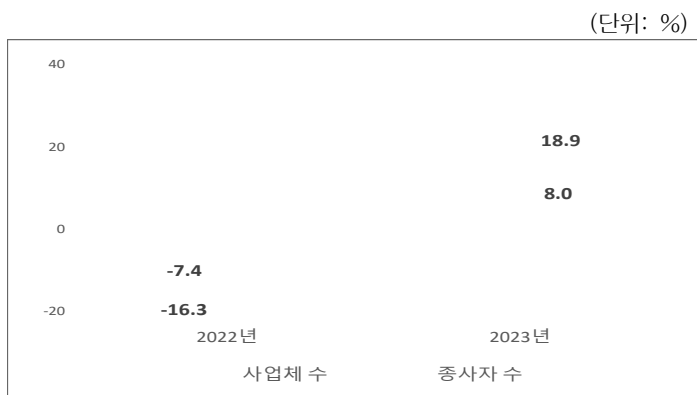
20. 다음 <보기> 중 <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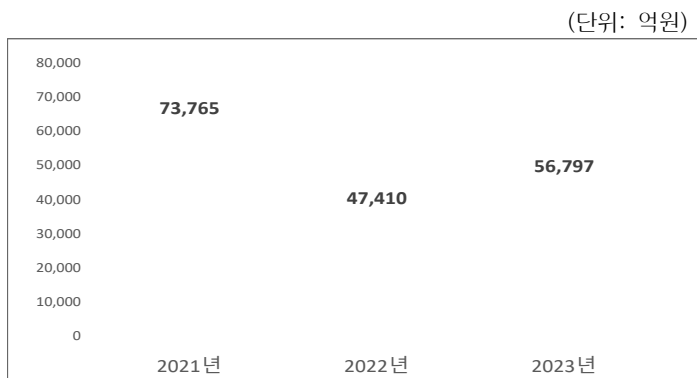
ㄱ. 2023년 종사자 수 10~19명인 스포츠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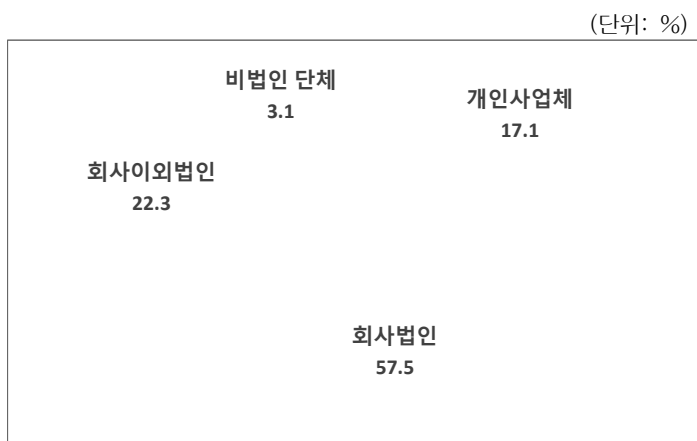
ㄴ. 2022~2023년 전년 대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변화율



ㄷ. 2021~2023년 스포츠산업 매출액



ㄹ. 2023년 스포츠산업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1. 다음 <표>는 2021~2023년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C에 해당하는 가구 유형(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1~2023년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가구유형	합계	4,807,641	4,914,785	5,102,300
	A	3,005,734	3,121,123	3,373,795
	B	1,488,527	1,489,179	1,444,145
	C	313,380	304,483	284,360

<조 건>

-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 해당 가구 유형의 비율이 감소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이다.
- 2021년 대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이다.
- 2022년과 2023년 중 전년 대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증가율이 5% 이상인 연도가 존재하는 가구유형은 단독 가구이다.

- ※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A	B	C
①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②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③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④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⑤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22. 다음 <표>와 <그림>은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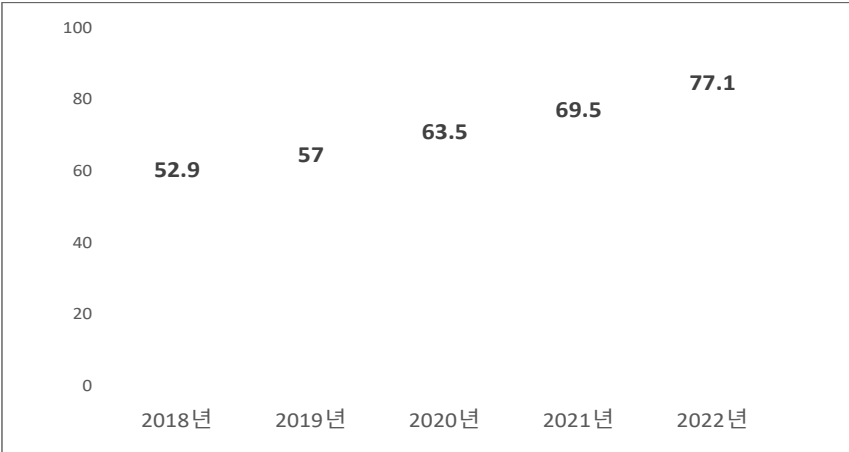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세감면액(A)	635,484	694,988	771,144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338,432	365,066	425,471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292,353	325,689	341,055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699	4,233	4,618
국세수입총액(B)	4,229,237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	13.1	14.0	16.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6	14.3	14.0

- ※ 1) 국세감면율(%) = $\frac{A}{A+B} \times 100$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개연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그림>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고 서>

국세수입총액은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 2021년에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은 전년 대비 33조원 이상 감소하였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1년 14.3%, 2022년 14.0%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0년 국세감면율은 13.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1년은 14.0%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22년의 경우에도 국세감면액은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감소하여 국세감면율은 상승하였다.

㉢2020년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전년 대비 각각 6.0조원, 7.6조원 증가한 69.5조원 및 77.1조원이었다. ㉣국세감면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50% 이상이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5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국세감면액에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이어 2021년, 2022년에도 1% 이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다음 <표>는 연도별 유독·준유독물질별 신규 및 기존등록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유독·준유독물질별 신규 및 기존등록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유독물질		준유독물질	
		유해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2020	신규등록건수	41	9	20	34
	기존등록건수	141	26	77	152
2021	신규등록건수	32	7	18	23
	기존등록건수	155	33	84	163
2022	신규등록건수	23	5	13	18
	기존등록건수	167	36	75	165
2023	신규등록건수	34	6	8	25
	기존등록건수	181	37	82	179

※ (n+1)년 기존등록건수 = n년 기존등록건수 + n년 신규등록건수 - n년 폐기건수

<보 기>

- ㄱ. 2023년 신규등록건수는 유독물질이 준유독물질보다 많다.
- ㄴ. 2021년 유독물질 폐기건수는 전년 대비 4건 감소하였다.
- ㄷ. 2021년 제한물질 폐기건수는 2020년과 2022년 허가물질 폐기건수의 합과 같다.
- ㄹ. 2022년 금지물질은 폐기건수가 신규등록건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4. 다음 <표>는 전국 17개 시·도별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전국 17개 시·도별 유치원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국공립		사립		5세 취원 아동 수
	유치원 수	교사 수	유치원 수	교사 수	
서울특별시	140	580	717	5,175	31,722
부산광역시	58	235	307	2,509	14,740
대구광역시	115	243	207	1,809	13,708
인천광역시	132	337	249	1,751	14,237
광주광역시	115	233	143	1,059	7,151
대전광역시	87	209	152	1,196	8,822
울산광역시	78	162	107	823	6,925
세종특별자치시	61	152	32	171	3,512
경기도	1,026	2,241	960	7,463	63,745
강원도	295	529	98	534	6,312
충청북도	259	547	85	526	6,276
충청남도	336	561	103	805	6,333
전라북도	361	667	155	1,084	7,749
전라남도	444	794	109	631	6,808
경상북도	476	782	220	1,561	13,882
경상남도	433	829	255	2,146	18,659
제주특별자치도	86	141	23	180	3,143
전국	4,502	9,242	3,922	29,423	233,724

※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됨

- 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수 대비 교사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특별시이다.
- ② 각 광역시의 국공립 유치원 수 중 최댓값은 각 광역시의 사립 유치원 수 중 최솟값보다 크다.
- ③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가 사립 유치원 교사 수보다 많은 시·도는 2개이다.
- ④ 경기도의 유치원 교사 1인당 5세 취원 아동 수는 전국 유치원 교사 1인당 5세 취원 아동 수보다 적다.
- ⑤ 전국 유치원 교사 수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유치원 교사 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높다.

25. 다음 <표>는 2020~2022년 갑국 A~E 기관의 공무원 현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2022년 갑국 A~E 기관의 공무원 현원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전체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전체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합계	1,134,995	543,151	47.9	1,156,326	562,018	48.6	1,173,022	576,632	49.2
A	1,108,622	()	48.0	1,129,545	550,622	48.7	1,146,278	564,853	49.3
B	4,793	1,890	39.4	4,801	1,945	40.5	4,809	2,020	()
C	18,160	7,771	42.8	18,429	7,985	43.3	18,378	8,239	44.8
D	356	155	()	362	158	43.6	376	168	44.7
E	3,064	1,179	()	3,189	1,308	41.0	3,181	1,352	42.5

※ 남성비율(%) = 100 - 여성비율

- <보 기>
- ㄱ. 2020~2022년 E 기관의 남성비율은 매년 감소한다.
- ㄴ. A~E 기관 중 2020년 대비 2022년 공무원 전체 현원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B 기관이다.
- ㄷ. 2020년과 2022년 모두 A~E 기관 공무원 전체 현원 중 A 기관 소속 공무원 현원의 비율은 98%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6. 다음 <표 1>, <표 2>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기업체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수 및 부·모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72,967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3,631
부	1,967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1,910
비중	2.7	6.0	8.5	12.8	16.3	19.6	22.6	24.1
모	71,000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1,721
비중	97.3	94.0	91.5	87.2	83.7	80.4	77.4	75.9

<표 2> 기업체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의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단위: %)

기업체 규모	2020년		2021년	
	부	모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300명 이상	69.1	62.9	71.8	63.0
50~299명	15.1	14.0	14.5	14.1
5~49명	12.0	18.3	10.5	18.0
4명 이하	3.8	4.8	3.2	4.9

※ <표 1>, <표 2>에 제시된 비중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2021년 4명 이하 기업체에 종사하는 부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ㄴ. 2010~2021년 기업체에 종사하는 부 육아휴직자가 기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ㄷ. 2021년 기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66% 이상이 300명 이상 기업체에 종사한다.
- ㄹ. 2018~2020년 기업체에 종사하는 모 육아휴직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7. 다음 <표>는 2018~2022년 A국 광물별 광업권 등록 건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8~2022년 A국 광물별 광업권 등록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광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속광	금	700	699	655	606	515
	철	76	73	70	71	62
	우라늄	37	19	13	11	2
	니켈	148	140	135	123	118
	소계	961	931	873	811	697
비금속광	석탄	111	117	118	123	128
	규석	736	740	745	725	685
	고령토	1,010	994	951	940	885
	납석	97	98	96	83	75
	활석	44	44	42	44	43
	운모	122	124	122	110	103
	규사	118	119	118	119	117
	마그네사이트	106	107	103	95	90
	소계	2,344	2,343	2,295	2,239	2,126

※ 위 <표>에 제시되지 않은 광물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 ㄱ. 2018~2022년 동안 광업권 등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광물 중 2020년 광업권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광물은 고령토이다.
- ㄴ. 2020년 광업권 등록 건수가 50건 이하인 광물 중 2020년 대비 2022년 광업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광물은 없다.
- ㄷ. 2018년 대비 2022년 광업권 등록 건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금속광 광물은 우라늄이다.
- ㄹ. 2018~2022년 동안 최대 광업권 등록 건수와 최소 광업권 등록 건수의 차이가 50건 이상인 비금속광 광물은 2종류이다.
- ㅁ. 금속광과 비금속광의 총광업권 등록 건수 격차가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28. 다음 <표>는 2021년 기준 세계 전기차 판매량 상위 6개국의 판매량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1년 기준 세계 전기차 판매량 상위 6개국의 판매량 현황
(단위: 대)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세계	1,176,610	2,014,692	2,123,347	2,993,287	6,571,649
갑국	579,000	1,087,089	1,060,303	1,159,582	3,334,161
을국	54,564	67,504	108,629	394,943	681,410
병국	198,349	361,315	326,644	295,399	631,152
정국	47,252	83,621	74,602	175,036	312,276
무국	37,597	46,703	61,349	184,587	308,663
기국	62,255	72,665	79,561	105,691	151,892

- ① 2019년 기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위 국가 판매량이 4위 국가 판매량의 4배 이상이다.
- ② 2017년 대비 2021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③ 2021년 기준 세계 판매량 상위 6개국 중 2018~2021년 동안 판매량이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국가는 3개이다.
- ④ 2018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0% 이상이다.
- ⑤ 2021년 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세계 판매량의 50% 이상이다.

29. 다음 <표>는 2023년 A국 주요 9개 산업의 기술무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년 A국 주요 9개 산업의 기술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 규모		기술무역 수지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기술 무역 수지비
전체	14,914	16.8	18,693	9.3	33,607	100.0	-3,779	0.80
농림수산	15	-5.2	163	-9.0	178	0.5	-148	0.09
섬유	110	62.5	235	-8.0	345	1.0	-125	0.47
화학	1,360	210.6	1,004	-10.0	2,364	7.0	356	1.35
소재	14	-49.7	161	47.1	175	0.5	-147	0.09
기계	2,015	35.3	1,838	13.6	3,853	11.5	177	1.10
전기·전자	4,005	19.7	8,121	40.1	12,126	36.1	-4,116	0.49
건설	155	6.9	67	4.6	222	0.7	88	2.31
정보·통신	6,235	2.8	5,306	-19.7	11,541	34.3	929	1.18
기술서비스	589	-19.5	579	22.1	1,168	3.5	10	1.02
기타	416	-8.4	1,219	38.8	1,635	4.9	-803	0.34

- ※ 1) 기술무역 규모 = 기술수출 + 기술도입
- 2) 기술무역 수지 = 기술수출 - 기술도입
- 3) 기술무역 수지비 = $\frac{\text{기술수출}}{\text{기술도입}}$

<보 기>

ㄱ. 기술무역 수지가 적자인 경우 기술무역 수지비는 1 미만이다.

ㄴ. 2023년 A국 주요 9개 산업 중 2022년도에 기술수출 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5개이다.

ㄷ. 2023년에 기술서비스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전체 기술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ㄹ. 2023년 전기·전자 산업은 전년 대비 기술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0. 다음 <표>는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 관측지점 위치와 각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미세먼지 관측지점의 위치와 미세먼지 농도
(단위: km, $\mu\text{g}/\text{m}^3$)

관측지점 i	위치		미세먼지 농도 p_i
	x_i	y_i	
1	1	8	103
2	8	3	42
3	8	6	54
4	2	2	99
5	3	5	88
6	7	8	60

※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동(x)과 북(y)으로 각각 떨어진 거리를 킬로미터(km) 단위로 나타낸 것임

<정 보>

평면에서 두 지점 (x_1, y_1) , (x_2, y_2) 간 거리 d 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d = \sqrt{(x_1 - x_2)^2 + (y_1 - y_2)^2}$$

<보 기>

- ㄱ. 관측지점 간 거리 d 가 가장 짧은 것은 관측지점 2와 3 간 거리이다.
 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관측지점과 가장 낮은 관측지점의 거리는 8km 미만이다.
 ㄷ. y_i 가 같은 관측지점 간에는 동쪽에 위치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
 ㄹ.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관측지점과 두 번째로 높은 관측지점 간 거리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관측지점과 네 번째로 높은 관측지점 간 거리보다 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다음 <표 1>, <표 2>는 2023년 위원회의 회의횟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23년 월별 · 위원회별 회의횟수
(단위: 회)

위원회 월	행정위원회	건강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위원회
1	6	4	7	2
2	8	11	8	1
3	7	3	9	2
4	11	9	9	4
5	9	8	5	7
6	9	4	8	5
7	13	8	6	7
8	10	5	9	6
9	11	11	13	14
10	12	16	11	15
11	9	10	13	18
12	6	7	7	11

<표 2> 2023년 회의시간별 · 위원회별 회의횟수
(단위: 회)

위원회 회의시간	행정위원회	건강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위원회
1시간 미만	40	31	13	1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0	34	46	24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	25	15	21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3	4	24	23
4시간 이상	10	2	7	12
합 계	()	96	()	92

- ① 2023년 월평균 회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법무위원회이다.
 ② 2023년 1~9월 동안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행정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최소 44회 이상이다.
 ③ 2023년 10~12월 회의횟수의 합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2023년 회의당 평균 회의시간이 1시간 50분 이상이다.
 ④ 2023년 동안 건강위원회와 법무위원회의 회의횟수의 합이 행정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회의횟수의 합보다 많은 월은 5개이다.
 ⑤ 2023년 각 위원회에서 연간 회의횟수 총합 중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회의횟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45% 이상이다.

32. 다음 <표 1>, <표 2>는 A군 주요 농작물(쌀, 콩, 마늘, 양파, 고추)의 연도별 재배농가 총수입 및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주요 농작물 연도별 재배농가 총수입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쌀	8,502	7,289	7,931	6,660	7,351	8,688
콩	791	577	363	301	361	426
마늘	637	957	1,047	1,204	1,204	1,024
양파	319	717	634	720	884	715
고추	1,354	1,093	1,150	911	969	1,540

<표 2> 주요 농작물 연도별 재배농가 수
(단위: 호)

연도 구분	전체	쌀	콩	마늘	양파	고추
2015년	1,089	635	367	123	55	323
2016년	1,068	605	294	166	67	353
2017년	1,042	579	284	155	64	311
2018년	1,021	555	284	145	57	322

※ 한 농가에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각 농작물마다 1호로 계산함

<보 기>

- ㄱ. 2015년 재배농가 1호당 평균 수입은 양파가 고추의 3배 이상이다.
- ㄴ. 2005~2016년 동안 총수입이 매년 증가한 주요 농작물의 개수가 총수입이 매년 감소한 주요 농작물의 개수보다 적다.
- ㄷ. 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마늘, 양파, 고추 중 어떠한 농작물도 함께 재배하지 않는다면, 2017년 쌀과 콩을 함께 재배하는 농가의 최소 호수는 100호 미만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3. 다음 <표 1>, <표 2> 및 <그림>은 1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경제활동 상태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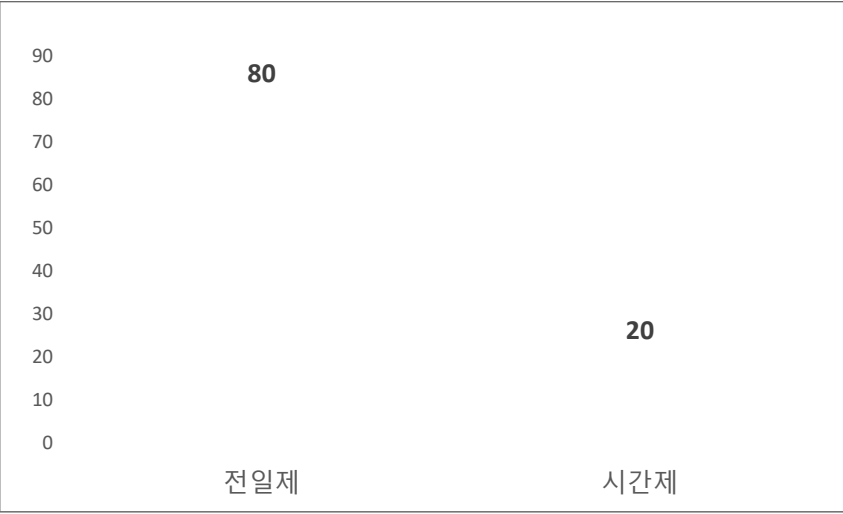
근로자			근로자가 아닌 자			합계
78.5			21.5			100.0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합계	구직자	비구직자	합계	-
72.5	27.5	100.0	11.7	88.3	100.0	-

※ 구직자란 근로자가 아닌 자 중 구직활동을 하는 자를 뜻함

<표 2>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구 분		비율
임금근로자	상용직	52.7
	임시직	12.0
	일용직	7.8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7
	고용원을 둔 사업주	3.4
	무급 가족 종사자	3.4
합 계		100.0

<그림>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별 구성비
(단위: %)



<보 기>

- 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비임금근로자 수의 70%를 상회한다.
- ㄴ. 근로자 수와 구직자 수의 합에서 구직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업률로 정의한다면 이때의 실업률은 5% 이하이다.
- ㄷ. 전일제 임금근로자 수는 6,000명 미만이다.
- ㄹ. 비임금근로자 수가 비구직자 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4. 다음 <표>는 2012년과 2021년 갑~무 국가(사랑, 행복, 희망, 평화, 지혜)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과 총조세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무 국가를 2012년과 2021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의 차이(D-C)가 큰 국가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무 국가의 소득세 부담 비중
(단위: %, %p)

구 분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			총조세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		
	2012년 (A)	2021년 (B)	차이 (B-A)	2012년 (C)	2021년 (D)	차이 (D-C)
갑	4.95	7.50	()	19.50	24.75	()
을	8.80	9.90	()	27.40	29.70	()
병	8.00	9.50	()	18.10	21.00	()
정	9.40	10.50	()	25.60	26.60	()
무	9.20	11.20	()	38.50	42.10	()
OECD 평균	7.50	8.30	()	22.40	23.80	()

<조 건>

- 2012년과 2021년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의 차이(B-A)가 가장 큰 두 국가는 사랑과 희망이다.
- 2012년과 2021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의 차이(D-C)가 OECD 평균의 두 배 미만인 국가는 평화와 행복이다.
- 2021년 사랑의 총조세 대비 GDP 비중은 평화의 1.1배이다.

- ① 사랑 - 희망 - 지혜 - 평화 - 행복
- ② 사랑 - 희망 - 지혜 - 행복 - 평화
- ③ 사랑 - 평화 - 지혜 - 행복 - 희망
- ④ 희망 - 평화 - 행복 - 지혜 - 사랑
- ⑤ 희망 - 행복 - 평화 - 지혜 - 사랑

35. 다음 <표>는 2018~2020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각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이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한 표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소득점유율과 소득분배지표
(단위: %, 배)

구 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각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1/10분위	0.9	0.9	0.9	2.2	2.3	2.5
	2/10분위	3.1	3.0	3.0	4.0	4.2	4.3
	3/10분위	4.8	4.7	4.7	5.5	5.5	5.6
	4/10분위	6.2	6.3	6.3	6.7	6.8	6.9
	5/10분위	7.6	7.7	7.7	8.0	8.0	8.1
	6/10분위	9.1	9.1	9.1	9.2	9.3	9.3
	7/10분위	10.8	10.8	10.8	10.8	10.8	10.7
	8/10분위	13.0	13.0	13.0	12.8	12.7	12.6
	9/10분위	16.5	16.5	16.2	15.8	15.5	15.2
	10/10분위	28.0	28.0	28.3	25.0	24.9	24.8
소득분배지표	5분위배율	()	11.4	11.4	6.6	6.2	5.9
	10분위배율	31.1	31.1	31.4	11.4	()	()
	10분위 분배율	33.7	33.5	33.5	45.1	()	48.3

- ※ 1) 소득분위란 소득을 기준으로 각 분위별 가구수가 동일하도록 균분한 것이며 1/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를 의미함
2) 소득점유율(%): 각 분위별 소득의 합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3) 5분위배율(배) = $\frac{\text{상위 20\% 소득점유율}}{\text{하위 20\% 소득점유율}}$
4) 10분위배율(배) = $\frac{\text{상위 10\% 소득점유율}}{\text{하위 10\% 소득점유율}}$
5) 10분위 분배율(%) = $\frac{\text{하위 40\% 소득점유율}}{\text{상위 20\% 소득점유율}} \times 100$

<보 기>

- ㄱ. 2018~2020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 상위 30% 소득점유율은 매년 50% 이상이다.
- ㄴ. 2018~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배율은 매년 감소한다.
- ㄷ. 2020년의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18년의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보다 높다.
- ㄹ. 2018~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 분배율은 매년 증가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36. 다음 <표>는 다국적기업 R의 자회사 I, S, W, J, Y의 법인세,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법인세 부담액이 큰 자회사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다국적기업 R의 자회사 법인세,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금액
(단위: 백만원, 명, 십억원)

구분	법인세	종업원 수	유형자산 금액
I	1,000	10	500
S	3,500	25	450
W	2,000	45	350
J	4,000	30	300
Y	5,000	10	400

※ 다국적기업 R의 자회사는 위 5개 기업만 존재함

<정 보>

- 자회사의 법인세 부담률 = $0.5 \times \frac{\text{해당 자회사의 종업원 수}}{\text{전체 자회사의 종업원 수 합계}}$
 $+ 0.5 \times \frac{\text{해당 자회사의 유형자산 금액}}{\text{전체 자회사의 유형자산 금액 합계}}$
- 자회사의 법인세 부담액 = 자회사의 법인세 × 자회사의 법인세 부담률

- ① S - J - I - Y - W
- ② S - J - I - W - Y
- ③ J - S - W - Y - I
- ④ J - S - Y - W - I
- ⑤ J - S - Y - I - W

37. 다음 <정보>와 <표 1>, <표 2> 및 <표 3>은 갑 고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 보>

- 갑 고등학교의 학생은 총 40명이다.
- 갑 고등학교는 1,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갑 고등학교 학생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은 A, B, C 세 종류 뿐이며 각 학생은 이 중 하나의 스마트폰만을 사용한다.
- 갑 고등학교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

<표 1> 갑 고등학교 1학년 스마트폰 사용자 수

(단위: 명)

성별 \ 기종	A	B	C
남	2	1	1
여	3	3	3

<표 2> 갑 고등학교 B 사용자 수

(단위: 명)

성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1	2	1
여	3	3	5

<표 3> 갑 고등학교 남학생 스마트폰 사용자 수

(단위: 명)

기종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A	2	1	2
B	1	2	1
C	1	2	3

<보 기>

- ㄱ. 갑 고등학교 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은 60% 이상이다.
- ㄴ. 갑 고등학교 학생 중 A 사용자 수는 최대 15명이다.
- ㄷ. 갑 고등학교 학생 중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의 차이는 최대 5명이다.
- ㄹ. 갑 고등학교 학생 중 A와 C 사용자 수의 차이는 최대 9명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38. 다음 <표>는 여론조사 회차별 응답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여론조사 회차별 응답 결과

(단위: 명, %)

회차			1차	2차	3차	4차
구분						
대상자 수			120,000	150,000	180,000	200,000
응답자 수			24,000	36,000	42,000	50,000
회차별 · 응답유형별 응답 구성비	긍정	매우 좋음	8.8	16.3	19.1	17.9
		좋음	26.5	26.6	29.3	21.5
	보통		19.1	16.9	16.9	19.0
	부정	나쁨	30.4	28.9	25.7	25.7
		매우 나쁨	15.2	11.3	9.0	15.9

※ 1) 복수 응답은 없음
2) 응답률(%) = $\frac{\text{응답자 수}}{\text{대상자 수}} \times 100$

<보 기>

ㄱ. 1~4차 여론조사 동안 응답유형이 매우 나쁨인 응답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ㄴ. 2차 여론조사의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응답유형이 부정인 응답자 수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ㄷ. 1차 여론조사에서 응답유형이 부정인 응답자 수는 3차 여론조사에서 응답유형이 좋음인 응답자 수보다 많다.

ㄹ. 1~4차 여론조사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회차에서 응답유형이 부정인 응답자 수는 응답유형이 보통인 응답자 수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갑국의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1>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수

(단위: 명)

유 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양육시설	1,065	992	827	726	717
공동생활가정	192	172	168	157	124
가정위탁	1,349	1,423	1,373	1,219	899
계	2,606	2,587	()	2,102	()

<표 2> 연도별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단위: 명)

유 형	성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양육시설	남	418	431	351	307	267
	여	268	323	294	229	213
공동생활가정	남	58	79	60	62	59
	여	50	78	60	50	53
가정위탁	남	373	381	328	229	183
	여	279	266	219	122	88

<표 3> 직종별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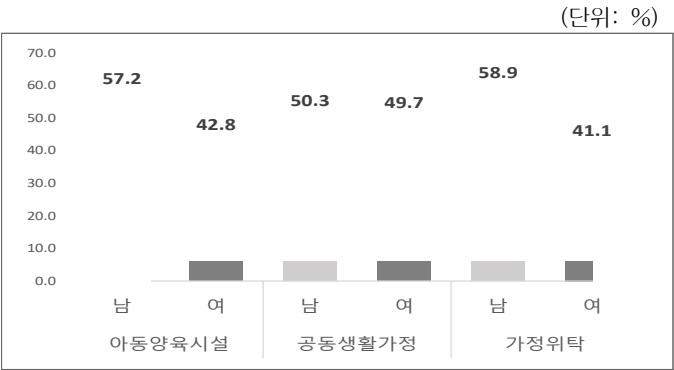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사무 관리직	전문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직	계
2018년	127	214	362	130	268	1,101
2019년	140	227	393	106	280	1,146
2020년	111	202	279	81	273	946
2021년	96	207	203	52	267	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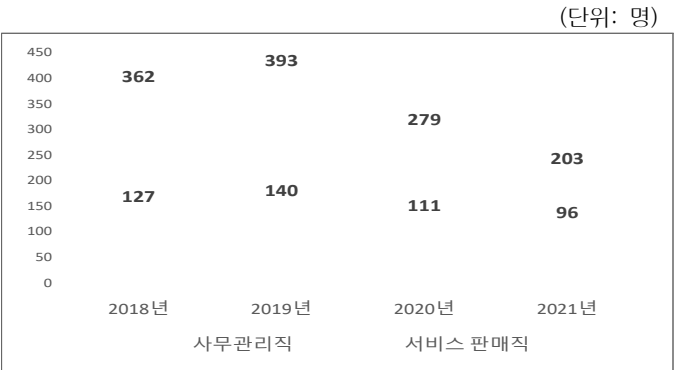
39. <표 1>, <표 2> 및 <표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22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유형 중 가정위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 ② 2019~2022년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한다.
- ③ 2022년 기준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동생활가정이다.
- ④ 2019년 전년 대비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서비스 판매직이다.
- ⑤ 2018~2021년 동안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직종을 나열하면 매년 그 순서가 동일하다.

40. 위 <표 1>, <표 2> 및 <표 3>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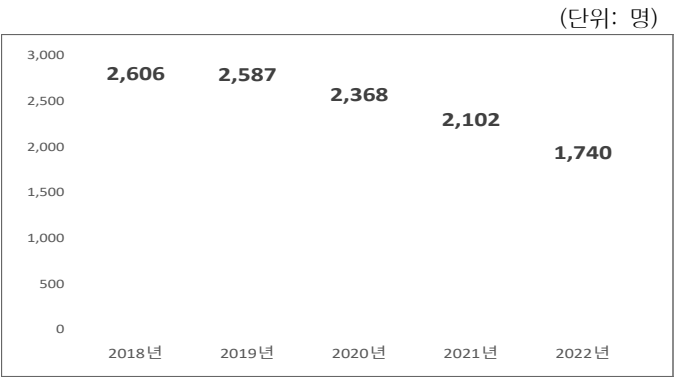
① 2019년 퇴소 자립준비청년 유형별 남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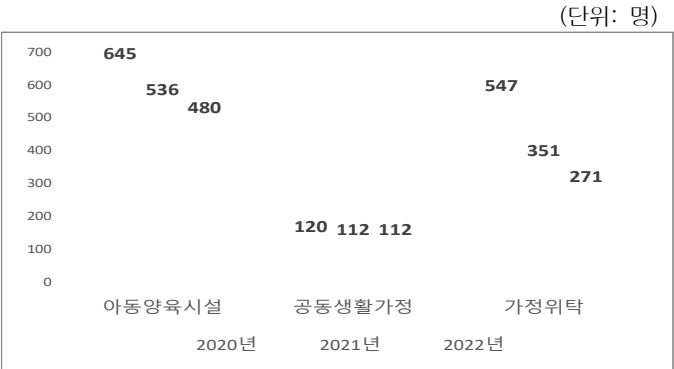
② 2018~2021년 자립준비청년 사무관리직 및 서비스 판매직 취업자 수



③ 2018~2022년 자립준비청년 수



④ 2020~2022년 유형별 퇴소 자립준비청년 수



⑤ 2021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비

